

# 전북지역 교사 성비 불균형 심각

## 여 교사로만 채워진 학교 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초등교사 10명중 7명 여성 차지

전북지역의 교사 성비 불균형이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집계 따르면 여 교사로만 채워진 학교가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12곳 가운데 전북이 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3곳, 경기 2곳, 대전·대구·부산 각각 1곳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초등학교 6년을 보내면서 남자 담임교사를 1명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교원 성비 불균형은 더욱 뚜렷하다.

지난 3월 기준 도내 초등교원은 7,099명이다. 이 중 여교사는 5,066명(71.36%)인데 반해 남교사는 2,033명(28.64%)으로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전북지역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7명이 여성인 셈이다.

이처럼 교직에 여성이 몰리는 것은 다른 직장에 비해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진급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때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교단에서 성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우호적이다.

특히 초등학교 교직에 여성의 선호도가 많다. 중·고생보다 지도가 수월한데다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에게 남성보다 여성 교사가 낫다는 전통적 인식이 이어져 온 까닭이다.

초등학교 교단에서 남성 교사들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지고 있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 인식을 위해 교단 성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1980년대 일부 교대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남자 교원 확보를 위한 특별한 제도가 도입됐다.

특정 성이 일정 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성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든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교대는 신입생 선발 때 특정 성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반대 성의 지원자를 선발하고 있다.

성비 불균형이 심화하자 2000년대 들어 전국 10개 교육대(제주대 교육대 포함)가 모두 임시 요강에 성비 적용 선발 정책을 적용, 남성 교사 구하기에 나섰다. 전주교대의 경우 자체적으로 구성된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75%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광주교대는 60%, 경인교대는 80%까지 대확별 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전주교대 관계자는 "특정 성비에 편중된 교단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초등교육 양성기관인 교대에서 성비 제한 규정을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비 제한 규정은 그야말로 '마지노선' 역할만 하는 수준이다.

성비 불균형을 해소할 근본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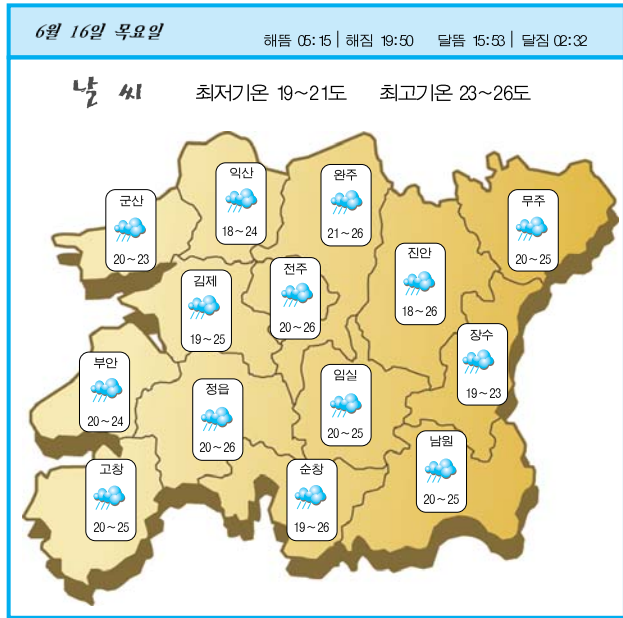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자교사 할당제 도입은 교사의 질적 하락이나 역차별 논란 등으로 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2006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도입했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공립 중등학교 교사임용 시험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에서 위헌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여초현상으로 교직사회의 다양성이나 성 관념, 학교운영 등 교육현장에서 비뚤적이지 않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단의 지나친 여성화 경향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성 역할을 인식시키는데 한계가 있기에 우수한 남성 자원을 교직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도내 대학생 자유학기제 수업 지원단 활동

전북대학교 사범대생과 도내 대학생들이 자유학기제 수업 지원단으로 나선다.

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사범대생으로 이뤄진 자유학기제 수업지원단과 대학생 자유학기제 봉사단을 구성, 2학기부터 도내 중학교에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원하는 중학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먼저 사범대생 자유학기제 수업지원단의 경우 전북대와 전주대 교육학과 학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활동 희망지역에 따라 일선 중학교에 배치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자유학기제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활동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30시간이다. 이 기간 중 학교 방문 횟수나 방문시간은 대학생과 학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되며 개인당 6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대학생 자유학기제 봉사단은 5명~11명 등 팀으로 구성됐으며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를 비롯, 모두 17팀이 활동하게 된다. 이들 봉사단도 희망지역과 학교를 선정해 주제선택 활동과 진로탐색활동을 하게 된다.

주로 과학, 진로상담, 동아리활동, 인문사회, 예술체육활동 등이 중심이다. 활동기간과 시간은 사범대생 수업지원단과 마찬가지로다.

/고민형기자

# 전통문화전당, 조선왕조실록복본 서울국제도서전 전시

## 전주사고본 614책 태백산사고본 50책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 완료를 앞두고 현재까지 복본된 조선왕조실록이 국내외 무대에 선보인다.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코엑스에서 개최하는 '2016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조선왕조실록 복본을 전시한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은 2008년부터 문화관광체육부와 전주시가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추진한 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보 151호 조선왕조실록 중 유일본인 전주사고본(태조~명종) 614책과 태백산사고본(선조~철종) 588책을 조선시대 당시의 제작 형태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복본(復本)은 원본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말로, 이번에 전시되는 복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51호 조선왕조실록 중 유일본인 ▲전주사고본(태조~명종) 614책 ▲태백산사고본(선조~철종) 588책 중 일부인 50책이다.

전주사고본과 태백산사고본의 원본은 현재 서울대 규장각 태백산사고본은 국가기록원 부산역사기록관에 각각 소장돼 있으며 이번에 전시되는 복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위해

본은 조선시대 당시의 전통제작 기법 형태를 그대로 빌려와 전통한지를 이용해 원본 그대로 복원한 것이다.

특히 복본 전시는 '천년을 가는 종이'로 불리는 전통한지와 현대의 첨단 인쇄기술이 결합돼 조선시대 제작 당시의 한지 물성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

다. 이번 전시 출판 인쇄 소재로서의 전통한지 제조기술의 가능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전시 참가의 목적이 있다. (사)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도서전은 1954년 서울도서전으로 시작해 60여년 간 추진된 전시회로,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잔치다.

전당은 이번 도서전이 국내외 출판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기록과 출판문화는 물론 전주의 우수한 한지 복원 기술을 공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재기자

## 전북교육개혁 시민연대 "일제고사 폐지" 촉구

도내 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15일 "비교육적인 일제고사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학업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한 삶을 위해선 일제고사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일제고사는 전국 모든 학생을 똑같은 시험지로 출 세우기식 무한 경쟁으로 '우수', '보통', '기초', '미달'로 등급·서열 화해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억누르고 심지어 부진학생을 낙인해 학교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화란 다양성을 억제하는 역작용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바, 교육에서 매우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를 이름만 그럴싸하게 포장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라 명명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4년 당선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 대부분이 일제고사의 폐지를 지지하면서 폐지 내지는 대체, 표집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일제고사의 폐지 내지는 표집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민형기자

전북서부보훈지청

# 6월은 호국보훈의 달

## 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우리 모두가 호국정신으로 하나되어 내 땅 내 재산을 되찾고 지켜준 국가유공자와 UN참전용사의 희생·공헌에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집시다.